

광주행 열차 '부정승차' 비율 매년 증가세

최근 3년간 적발 1만6천명 이상... '자율 탑승' 방식 등 여파 '과태료 30배' 효과 없어... 코레일 "의식 제고 캠페인 강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광주로 오는 열차에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등 부정승차자가 1만6천명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임료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나, 해마다 1천여명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광주로 오는 KTX·SRT 등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자는 총 1만6천888

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천96명 ▲2022년 5천699명 ▲2023년 7천33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운임의 30배까지 과태료로 내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가 늘고 있는 이유는 시내버스·지하철과 달리 탑승 전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날 오전 광주 송정역 각 승강장에서 시민들은 KTX·무궁화·새마을호 등 열차가 도착하자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곧장 자리로 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코레일 측은 출발 후 철도 승무원이 자리를 오가며 부정승차자가 있는지 살피나, 쉽사리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직원은 "종이 티켓보다 모바일 탑승권 이용객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들이 구매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대신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라 확인 요청도 쉽지가 않다"며 "자신의 좌석이 아니어도 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앉는 분들도 많고, 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 검표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처럼 부정승차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인력·재정적 한계에 쉽지 않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예전부터 꾸준히 불거졌던 문제"라며 "과태료가 아무리 높아도 시민의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직접 좌석을 확인하는 기동검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확인하기엔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 부정승차를 하지 않도록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은정기자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소송 2라운드

빛고을SPC 참여 케이엔지스틸, 우빈산업 상대 1심 승소 롯데건설, 우빈산업에 근질권 실행... 소송 승계 여부 쟁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 법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의 주주권을 확인하는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핵심 쟁점은 빛고을SPC 참여 업체인 케이엔지스틸이 재판부에 요청한 '인수 참가'의 가부(可否) 여부인데, 받아들여질 경우 '주주권 확인' 다툼은 우빈산업이 아닌 롯데건설과 하게 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케이엔지스틸과의 '주주권 확인 등' 1심에서 패소한 우빈산업과 빛고을SPC가 제기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빛고을SPC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으로, 출자지분율은 (주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엔지스틸 24%, 파크엠 21%)

1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엔지스틸이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또 다른 피고 빛고을SPC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그 사이 우빈산업은 한양과의 소송에서도 패소, 케이엔지스틸까지 합쳐 빛고을SPC의 주식 총 49%를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우빈산업은 한양과의 판결이 나오기 1주일 전인 지난해 10월16일 롯데건설이 부도처리 된 우빈산업에 대해 근질권(담보)을 행사해 주식 49% 모두를 인수, 1심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탓에 케이엔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주주권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실소유주나 다른 없는 롯데건설이

소송의 피고로 들어오는 '인수 참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따진 이날 심문 기일에서 케이엔지스틸 측은 롯데건설이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빈산업은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롯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케이엔지스틸과의 '주주권 확인' 소송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광주고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빛고을SPC 주식 24%'를 두고 진행 중이나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다. 두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각각의 재판은 병합 없이 별도 진행될 전망이다.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된다. 심문이 끝난 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로부터 2주 내 인수 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주주권 확인' 소송의 피고는 우빈산업에서 롯데건설로 바뀐다. /안재영기자

영암 외국인 전용 클럽서 불법체류자 무더기 검거

접객원 2명·손님 68명 등 총 70명

영암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접객원과 손님 등 불법체류자 7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영암군 소재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을 집행했다. 현장에서 기관들은 유층접객원 2명과 손님 68명 등 총 7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거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 출입자를 통제하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관련 제보를 접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70명 전원은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시킬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전용클럽·유형업소 등에 대해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신속한 대피 훈련 재난상황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훈련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북구민방위대, 자율방재단 등 참가자들이 화재발생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5·18조사위 보고서 권고사항 미반영 우려" 시, 설명회 개최...참석자들 "전원위 기각엔 의견 못담겨 대책 필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전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합보고서에 실리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6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종합보고서 권고사항 의견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사위가 오는 6월 제출해야 하는 종합보고서에 권고사항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오일 공병3단체 및 기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 주도로 안내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의견서를 작성해도 종합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종 반영은 조사위 전원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민의 의견이 아닌 거냐"며 "기껏 작성해도 (통과되지 않으면) 한 줄도 담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가 전원위 의견을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도 "규명"과 "불능"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권고

사항에 대한 것만 참여하게 의견이 나눠진 양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낚시객 선원 위장...영해 밖서 낚시 목포해양경찰청은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077 연안복합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55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후 영해를 벗어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외식산업(주) 출장부페